광주産 '올 뉴 카렌스' 세계 명차속 당당한 자태

2013 서울 모터쇼 가보니

13개국 첫 공개 신차 42대 베일 벗어
친환경그린카·슈퍼바이크 관객 눈길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3 서울모터쇼에서 기아자동차 '올 뉴 카렌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올 뉴 카렌스'는 7년 만에 선보이는 뉴 카렌스 후속모델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된다. /임동률기자 exian@

"전 세계 신차 여기 다 모였네."

'2013 서울모터쇼'가 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1일 간의 축제에 돌입했다. 9회를 맞은 서울모터쇼는 '자연을 품다, 인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국가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산업 위상에 걸맞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축구장 15개 크기에 달하는 10만 2431㎡의 전시장에 13개국 331업체가 참여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9대를 비롯해 아시아 최초로 15대, 한국 최초로 18대가 첫 선을 보이는 등 총 42대의 신차가 전시장을 수놓았다.

◇기아차 '올 뉴 카렌스'·콘셉트카 'CUB'(캅) 첫선=이날 국내 첫 공개된 '올 뉴 카렌스'는 기아차가 2006년 뉴 카렌스를 출시한 뒤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차로, 세단의 스타일과 RV의 공간 활용성을 결합시킨 새로운 콘셉트의 차다. 기아차는 2009년 프로젝트명 'RP'로 개발에 착수, 51개월의 연구개발 기간 동안 2200억 원을 투입해 새 카렌스를 완성했다.

이삼웅 기아차 사장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2013 레드닷 수상에 빛나는 세련된 스타일이 집약된 모델"이라며 "세단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 활용성에 디젤 및 LPI 엔진의 강점을 더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다.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카렌스는 최신 디자인이 집약돼 승용세단 같은 역동적이고 세련된 외관과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실내 공간이 돋보였다.

도시형 4도어 쿠페 콘셉트카 'CUB'(캅, 개발명 KND-7)은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젊고 역동적인 기아차 디자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큰'(Bigsmall, 콤팩트한 크기에 큰 가치를 제공한다)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차체를 낮고 넓게 디자인해 속도감과 안정적인 비례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최고출력 204마력의 1.6 T-GDI 엔진,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해 고성능 소형 콘셉트카에 어울리는 강력한 동력성능 및 주행성능을 갖췄다.

이외에도 럭셔리 CUV 콘셉트카 '크로스 GT(개발명 KCD-9)', 5도어 준중형 해치백인 'K3 유로'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독일·일본 브랜드 앞다퉈 아시아 최초 공개=수입자동차 점유율 1위의 BMW는 아시아 최초로 '뉴 320d 그란 투리스모'와 '뉴 M6 그란 쿠페', 'Z 4 Drive 35is'를 공개했다. BMW의 MINI도 이번 모터쇼서 국내 최초로 7번째 모델인 '패이스맨'을 무대에 올렸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올 하반기 국내에 출시 예정인 소형차 '더 뉴 A 클래스'는 단연 돋보였다.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는 폴크스바겐 '골프'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아우디도 슈퍼카 'R8'의 새로운 버전을 국내최초 공개했다. 영화 '아이언맨'의 애마로 유명한 만큼, 디즈니에서 제작한 아이언맨 실물 모형과 함께 등장했다. 포르쉐 역시 '뉴 카이맨'과 '뉴 카이맨 S'를 국내 최초로 전시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렉서스는 'IS'의 3세대 풀 체인지 모델 '뉴 제너레이션 IS'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500대 한정 생산으로 화제가 된 슈퍼카 'LFA'도 한국에서 처음 공개됐다.

혼다는 신형 '시빅'을 등장시켰고, 1억8000만 원에 육박하는 슈퍼바이크 'RC213V'도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인피니티는 전기차 'LE 콘셉트'를 아시아 최초로 들여왔다.

◇'미래의 자동차' 곳곳에…전시관도 눈길=주제에 걸맞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그린카 34대가 전시장 곳곳에서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자동차 외에도 이륜차와 타이어, 부품, 자전거 등 '탈 것'의 미래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었다.

현대차(530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시공간(3600㎡)을 차지한 기아차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파도가 물결치는 순간을 전시관에 옮겨놓은 것처럼 꾸미고,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을 맞이했다. '쇼카'(Show Car)로 등장한 카렌스 LED카는 차량에 부착된 LED 화면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카렌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고, 탑승자에게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 랩핑카와 실제 프로야구 경기에 이용되는 K3 오픈카를 선보였다.

수입차 진단 체험과 좋은 중고차 고르는 방법 시연 등 일반 참관객을 반기는 행사도 곳곳에 마련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매화 향기 따라 땅끝 마을로
보해매원 내달 7일까지 무료개방

매화 향기 따라 땅끝 마을로!

국내 최대의 매실농원인 보해매원(대표이사 김영재)이 봄을 맞아 4월 7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지난 1987년 조성된 보해매원은 총 14만평 규모로 1만4000여 그루의 매실수가 식재돼 봄이면 '꽃천지'를 이룬다. 보해는 올 꽃샘추위로 7일 정도 매화가 만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매실 농원의 매화꽃을 구경할 수 있는 최적기를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보해매원은 눈처럼 하얗게 뒤덮인 매화 터널과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으로 영화 '너는 내 운명'과 '연애소설'의 촬영지로 활용된 바 있으며 한 해 평균 30여만명의 상춘객들이 찾을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또한 보해매원에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해남군에서 후원하는 '제4회 땅끝매화축제'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직접 수확한 국산 매실로만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과 10년 숙성의 고급매실주 원액과 순도 99% 이상의 순금가루를 브렌딩한 프리미엄 매실주 '순금 매취순' 한정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보해 관계자는 "보해 매원은 매화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마다 3월이면 농원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매실의 뛰어난 맛과 효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부, 올 경제성장률 2.3%로 낮춰
3.0%서 대폭 하향…내달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월에는 민·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를 늘리고자 투자이민제 확대, 외국인투자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외 등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한다. /연합뉴스

지방이전 기업 10곳중 7곳 흑자
저렴한 인건비·땅값에 가격 경쟁력 높아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흑자 경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지 2년 이상 된 기업 300곳의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69.4%가 흑자, 30.6%가 적자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하기 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53.4%, 비슷하다는 29.9%,나빠졌다는 16.7%였다.

고용은 45.5%가 개선된데 비해 34.1%는 비슷하다, 20.5%는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주요 거래처 인근으로 이전한 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땅값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운송비가 주는 등 효율성이 개선됐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데다 도로 등의 인프라가 부족해 물류가 불편하고 금융기관이 부족한 점 등이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지방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 협의 내달 1일 시작
노조 대책위원회 구성…인력충원·생산성 증대 쟁점

기아차 광주공장이 62만대 증산 설비를 갖추고서도 2개월째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증산 관련 노사 협의가 다음달 1일께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고 62만대 증산을 위한 2공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다음달 1일께 노사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대책위원회를 노조 집행부 3명과 대의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증산과 관련해 생산, 설비, 인력배치, 복지 등 다양한 현안과 일정을 확정하고 사측과 협의를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조의 대의원대회 지연으로 속을 태우던 사측에서도 노사협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양측은 오는 4월 1일 상견례를 하게 되면 곧바로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장 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책위원회에서 증산과 관련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책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증산에는 노사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협의가 시작되면 증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시행한 주간 2교대제 시행에 따른 노동강도 변화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 최근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생산량 확대에 따른 판매전략 등에서 노사 간 이견이 커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93.52 (+0.08)	552.64 (+3.92)	2.45% (-0.13)	1112.70원 (+1.10)